

## 大學부설 社會教育기관의 實相과 기본방향

洪 基 亨

(中央大 教育學科)

우리나라 大學附設 社會教育기관은 세계적 보편화 현상인 開放된 高等教育체제와 비교해 보던 아직껏 소극적인 制度的 閉鎖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80 년대에 들어 平生教育 이념의 추구하고 大學教育 인구의 증대를 해결해 갈 수 있는 代案的 教育체제로서 점진적으로 實效化되고 있다. 개방체제로서의 大學교육은 이제 그 조직, 교육 과정, 시설, 학습자료 개발, 교수-학습매체의 지원 등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대학은 이제 전통적 개념의 'university' 로 머무르기보다는 갖가지 社會的 要請을 수용하는 'multiversity' 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 1. 머리말

大學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教育체제의 운영형태와 그 기능 간의 관련 속에서 고려되고 변화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우리 대학들이 보편지향적인 고도 산업사회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제공하고 있는 大學부설의 社會教育 프로그램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大學교육의 社會的 責任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社會教育 형태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현재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요청 속에서 조직·운영되고 있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산업사회의 변화와 平

生教育 理念을 토대로 최근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각종 社會教育 기관의 교육내용이 교육적 목표와 기능을 얼마나 달성하고 발휘하고 있는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통적 개념의 대학이 지나칠 정도로 대학 고유의 保守的 體제를 고집해 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오늘날 高等教育 體제의 開放化가 이들 社會教育 기관의 운영을 통해 얼마나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라 하겠다. 사회변동의 가속성과 다양성,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지식분배의 불평등 현상, 평등주의 이념과 大學교육의 민주화 등은 대학의 開放과 융통성있는 代案的 教育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 대학들도 대학교육의 大衆化를 향해 이런 저런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대처능력과 이념추구 면에서 아직은 미흡하다고들 한다. 의지적으로나 기능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해방 이후 급격히 팽창된 고등교육 체제의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와, 대학교육이 추구해 가야 할 이념과 교육내용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분명한 교육철학의 이념과 내용의 충실보다는 교육재정의 충당 및 확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사립대학들의 현안과제가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사학운영의 財政難 해결을 수익자 부담원칙 아래 정규대학 학생정원의 增員에만 의존해 온 나머지, 양적 팽창에 따른 질 추구 면에서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비탄증 환자' 상태의 대학 체질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으로서의 大學擴張(university extension) 내지는 繼續教育(continuing education)에 대한 구상과 시도에는 역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대학의 社會教育 參與는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보편적 내지는 필수적인 고등교육 체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학은 이제 정규 학생만을 가르치는 보수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근로청소년, 성인 학습자 및 고령자를 위한 학습의 場으로 開放되고 있다. 대학은 수준높은 인력자원의 확보와 교육시설의 활용 면에서 다른 어느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비해 교육서비스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사회발전에 있어 지니는 實務性和 適切性이라는 측면에서 마땅히 하나의 社會教育場으로 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을 합의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대학이 보수적 전통 개념인 university 라기보다는 multiversity 라고 하며,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教育體制의 開放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방체제로서의 대학교육은 이제 그 조직, 교육과정, 시설, 자료개발, 교수-학습매체의 활용, 학생지원 등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대학부

설 사회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및 교육내용 구성의 실상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 2. 大學부설 社會教育기관의 實相

우리의 대학 사회교육 기관도 오늘의 산업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계속교육 및 평생교육 이념의 대두로 점차 확산되면서 어느 정도 一般化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을 기점으로 일부 대학들이 주부대학 강좌나 시민교육과정 등을 개설하기 시작하면서 '8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대학 부설기관으로 편제되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게 되었다. 다양한 강좌 개설에 따라 수강생 규모도 연간 2천 명을 넘는 대학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1992년 2월 현재 28개 대학과 6개 전문대학이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생정원만 하여도 3만 5천 명에 달하며, 이밖에 단기과정 및 수시강좌에 등록하여 교육받고 있는 학생 수도 거의 5만 여 명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1986년 이후 각 대학부설 社會教育院의 현황을 유형별·설치연도별·시도별로 살펴보면 그 실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社會教育院의 現況

먼저 유형별 현황을 보면, 사회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附設機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16개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 아래 1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교육 기관은 1986년에 이화여대가 평생교육원을 개설·운영한 이래 199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각 대학별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생교육의 理念이 1970년에 대두되기 시작하여 시민정신 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실 등의 公開講座를 각 사회교육 단체 및 대학이 개설하면서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온 결과다.

시·도별 현황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대학 사회교육 기관도 서울에만 거의 절반이 몰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체에 따른 지역

〈표 1〉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설치현황

(’92년 2월 현재)

명칭	설치연도	경원	과정수	수강료	대상	개설시기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86. 1. 20	2,550	8	40,000~120,000	미혼여성, 주부	주·야간강좌
대림공전산업체기술향상연수원	’86. 3. 21	400	10	무료(위탁자부담)	산업체근로자(남)	야간강좌
홍익대 미술·디자인교육원	’86. 8. 23	2,700	5	153,000~206,000	일반인(남·여)	주·야간, 계절재
명지대 사회교육원	’87. 1. 13	1,990	4	50,000	일반인(남·여)	주간강좌
한양대 평생교육원	’87. 8. 14	2,490	7	50,000~250,000	일반인(남·여)	주·야간강좌
순천대 영농교육원	’87. 11. 28	150	3	도보조, 50,000	농민후계자, 영농희망자	주간강좌
한남대 사회교육원	’87. 11. 28	1,050	6	50,000	주부, 직업여성	주·야간강좌
대구대 사회교육원	’87. 12. 1	3,500	4	무료	일반시민, 근로자	주·야간강좌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87. 12. 2	2,580	5	25,000~100,000	일반여성	주·야간강좌
숙명여대 평생교육원	’88. 1. 9	2,000	5	60,000~260,000	일반여성	주·야간강좌
대구보건전문대 노인복지교육원	’88. 2. 8	60	1	무료	노인(남·여)	주간강좌
경북실업전문대 노인복지교육원	’88. 2. 29	60	1	30,000	노인(남·여)	주간강좌
계명대 사회교육원	’88. 2. 29	970	5	25,000~350,000	일반인(남·여)	주·야간강좌
아주대 산업교육원	’88. 9. 22	330	3	위탁자 부담	산업체근로자	야간강좌
단국대 진안캠퍼스 사회교육원	’89. 7. 13	300	3	20,000~30,000	일반인(여성)	주간강좌
금오공대 사회교육원	’89. 7. 13	380	4	위탁자 부담	일반인(남·여), 기업체	주간강좌
전주대 평생교육원	’89. 9. 21	1,120	4	30,000~45,000	일반인(남·여)	주·야간강좌
서강대 국제평생교육원	’89. 9. 21	208	3	45,000~125,000	일반인(남·여)	주간강좌
단국대 사회교육원	’90. 2. 17	80	1	370,000	일반인	주간강좌
중앙대 산업교육원	’90. 3. 10	2,300	25	30,000~500,000	일반인, 기업체(남·여)	주·야간, 계절재
호서대 사회교육원	’90. 4. 3	830	5	50,000~400,000	일반인	주간강좌
국제대 사회교육원	’90. 7. 16	320	10	150,000	일반인	주간강좌
광운대 전자계산교육원	’90. 7. 16	1,300	3	55,000~495,000	일반인	주·야간강좌
경기대 사회교육원	’90. 9. 4	545	6	140,000~450,000	일반인	주간강좌
대전산업전문대 평생교육원	’91. 1. 18	1,000	7	37,500~150,000	일반인	주·야간강좌
대전전문대 사회교육원	’91. 2. 9	320	5	75,000	산업체근로자	주·야간강좌
대전대 사회교육원	’91. 3. 4	200	1	75,000	일반인	주간강좌
동덕여대 여성사회교육원	’91. 3. 20	590	10	70,000~450,000	여성	주·야간강좌
배재대 사회교육원	’91. 6. 12	130	2	100,000~250,000	일반인	주·야간강좌
서울여대·평생교육원	’91. 9. 6	1,085	6	45,000~110,000	일반인	주·야간강좌
경원대 평생교육원	’91. 9. 6	940	3	50,000~80,000	일반인	주·야간강좌
서울신학대 사회교육원	’91. 10. 5	190	4	100,000	일반인	주간강좌
석원대 평생교육원	’92. 2. 13	400	3	30,000~180,000	일반인	주·야간강좌
기전여자전문대 여성사회교육원	’92. 2. 13	570	7	250,000~350,000	일반인	주·야간강좌
계 : 34교	—	33,638	179	—	—	—

〈표 2〉 유형별 현황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산업교육원	노인복지교육원	전자계산교육원	미술디자인교육원	산업체기술향상교육원	일교육원	농업교육원	계
16	10	2	2	1	1	1	1	1	34

〈표 3〉 설치연도별 현황

구분	계	’86	’87	’88	’89	’90	’91	’92	비고
시설수	34	3	6	5	4	6	8	2	대학 28
경원	33,638	5,650	11,760	3,420	2,008	5,375	4,455	970	전문대학 6

〈표 4〉 시·도별 현황

구 분	계	서울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시설 수	34	14	2	4	4	1	3	2	1	3
정원	33,638	23,738	1,030	2,380	1,860	400	1,450	1,690	150	3,910

사회 발전을 위한 敎育參與 機會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방대학에도 사회敎育 기관이 많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 2) 社會敎育課程의 概況

대학의 사회敎育은 그 설립 초기에는 대학의 부차적·주변적 기능으로 수행되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점차로 전체 敎育體制에 統合된 대학의 새로운 주요 敎育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敎育내용 역시 고도의 專門性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문제는 열악한 사학체제의 충당을 위해 일부 대학들이 교양강좌 위주의 부실한 敎育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학의 사회敎育 기관이 고등敎育 체제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敎育은 사회敎育원, 평생敎育원, 사회敎育연구소, 지역사회敎育연구소 또는 특수대학원에 부설되어 있는 특수 분야의 敎育과정에서 이르기까지 짧게는 1주(주 2~3일, 1일 2~3시간)에서 길게는 1년 과정의 전문敎育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 대학부설 사회敎育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敎育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종합과정

이 과정은 대학을 공개함으로써 大學敎育의 機會를 넓혀 대학 수준의 敎育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4년 과정의 대학敎育을 2년 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종합 교양과정 I·II, 전공과정, 그리고 일반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이화여대, 계명대, 덕성여대, 세종대, 서강대, 경희대, 명지대, 대구대, 숙명여대, 한성대 등 10개교).

### ② 생활외국어과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 2외국어 공개강

좌 중에서 각자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대부분의 대학들이 사회敎育 기관의 공통적인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있음).

### ③ 카운슬러 敎育과정

카운슬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양·전문·실습과정을 이수케 함으로써 카운슬러로서의 資質을 갖추게 함이 목적이다.

### ④ 유아敎育 행정적 전문敎育과정

유아敎育 기관의 행정자들에게 유아敎育의 이론과 실재를 敎授하고 연구하게 함으로써 行政家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 ⑤ 아동 음악敎育자 전문敎育과정

유아 또는 아동을 위한 음악敎育 기관의 교사 및 운영자, 자녀에게 音樂敎育을 시도하고자 하는 학부모 및 비전문가들을 위한 음악敎育 지도 방법과,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음악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재를 敎授한다.

### ⑥ 노동여성 기초교양과정

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職業女性의 지적 수준을 높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 ⑦ 최고경영자 敎育과정

주로 서울소재의 주요 대학 대부분이 전문대학원의 특수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다.

### ⑧ 대학 공개강좌과정

이는 제 2의 대학敎育 機會를 지망하는 사람들에 生活의 質 향상 및 自我實現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대학부설 평생敎育원이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 ⑨ 獨學者를 위한 학위취득과정

개방된 고등敎育의 한 형태로서 대학 미진학 고교졸업자로서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코자 하는 지망생들에게 교양과정인정 시험과목(필수 3과목, 선택 5과목)에 대한 시험면제를 위해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 ⑩ 산업 노동관계과정

이 공개강좌는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직장생활을 통해 사회정의의 구현하려는 근로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勞動問題에 대한 기업인의 이해를 촉구하고, 노사 간의 긴밀한 협조를 마련하여 자기 스스로의 이익 증진은 물론 공동체의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표를 둔다.

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과정

이 과정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양식을 위한 교양과정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生活學習社會의 풍토조성이 목적이다.

이밖에도 컴퓨터교육, 전통문화교육, 간호사교육, 노인복지, 여성개발 등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개설되고 있다.

3) 교육프로그램 運營의 問題點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사회교육과정은 그 형태와 내용별 성격에 따라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인의 생업과 관련된 직업영역,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영역, 첨단기술 연수영역, 대학교육의 공개강좌영역, 기타 문화예술영역 등이다.

教育對象者의 참여분포를 보면 가정의 여성층이 일반 성인층과 직업 성인층에 비해 많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교양 고취 및 여가 선용을 위한 生活教育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지나치게 교양강좌의 성격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教授方法 면에서도 대부분의 대학 사회교육은 기존의 정규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내용과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참가자 대부분이 성인학습자이기 때문에 교수-학습 형태 역시 정규학생들과 다른 접근방법을 시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성인학습자에 알맞은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하고, 이론과 경험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독특한 학습방법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評價 體制와 過程에 있어서도 정규대학의

체제와는 差別性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구성에 있어 그 방향과 이념이 본질적으로 開放性과 彈力性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독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는 오늘의 우리 대학들이 성인학습자를 받아들이는 기본출발점 자체가 문제된다. 사회봉사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 이행이라기보다는 대학교육의 보편화 현상을 당장의 취약한 私學 財政의 打開策으로 역이용하려는 자세와, 그간에 지나왔던 대학교육의 학문적 낙후와 이념적 폐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강생의 확보가 용이하고 수업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교육과정 구성과 강사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교육 이념과는 거리가 먼 잡다한 프로그램들을 거침없이 개설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은 어디까지나 지식과 학문적 이론을 새롭게 창출하는 高等教育 체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일반교양 강좌도 필요하겠지만,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專門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專門性을 지닌 繼續教育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이미 개설된 전문대학원의 전문교육과정과 기존 대학의 전공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단기교육과정, 공개 및 청강과정, 기업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탁과정 등으로 탄력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학은 교수인력과 실험·실습의 場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일반의 사회교육기관들과 구분되는 대학 사회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立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3. 大學부설 社會教育기관의 基本性格

현대의 사회체제는 전통적인 고등교육체제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회체제 변화에 따른 인간 平等主義 이념 아래 대학교육에서도 엘리트주의로부터 대중적·보편적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開放型 대학교육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학교육은 전통적인 폐쇄성, 중

착적인 형태의 교육내용 구성,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교수방법의 아집에서 탈피해야 한다. 따라서 제반적으로 선발된 학교내 학습자 중심의 기존 고등교육체제 운영은 그 틀과 내용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있다.

대학의 사회교육 체제는 고등교육 수요의 증대 문제를 해결해 가는 代案의 체제로서 그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즉, 엘리트 의식의 고등교육체제로부터 大衆化 내지는 普遍的 教育體制로 전향하는 데 큰 몫을 해내야 한다. 이는 또한 인간의 잠재력 해방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와 관련된 개방사회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등교육은 이제 소수 정예화와 실력주의화보다는 모든 사람의 權利로서 인식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몇 가지 운영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제시해 본다.

### 1) 入學許可 基準의 완화

최소한의 입학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철저한 학력주의의 잔재로서 先行學歷을 고집해서는 평생교육 이념과도 상치됨을 재인식해야 한다.

### 2) 受惠者 부담 教育費 책정의 適切性

이는 대학들이 사학재정의 충당 필요에서 경쟁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현실에 관한 문제이다. 개방체제의 사회교육은 값싸고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학의 '계속교육과정'에 대해 國家의 財政的 支援이 전무한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성인교육 내지는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부설 사회교육기관의 설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

### 3) 교육프로그램 履修者에 대한 學點 인정

현재 대학부설 사회교육 학습자들에게 이수 과목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운영의 가장 취약한 점이다.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격려로서 일정한 수준의

학점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開放學習機會(open access in learning)의 권리를 적용한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4) 大學行政 체제상의 社會教育기관 認定

현재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은 대부분 전체 대학의 행정체제로부터 고립된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학점제 인정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正式機構로 통합되는 데는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開放化 철학과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상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문제라 하겠다.

### 5) 社會教育기관의 大學別 特性化 및 協力체제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은 각 대학의 여건과 전통 그리고 물리적·인적 자원에 따라 특성있게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대학의 중점 육성학과 및 전공분야별 시설과 인적 자원을 감안하여 전문적인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제공된다면, 사회교육기관 운영의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대학간 상호 학점 교환제 등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4. 效率의 教育프로그램 內容의

### 選定 및 實施

현재 각 대학들이 개설하고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내용 선정문제, 교수-학습매체의 개발, 과제물 제출과 시험에 따른 평가체제의 부적절성,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하는 지도자의 자질, 자기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지도 미흡 등으로 제 2등급(second class)의 교육으로 간주될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여러 가지 제한점과 취약점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 실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開設 目標의 확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교양 위주의 프로그램 수준을 벗어나서 專門分野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변화하고 있는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과 이론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학습자 대부분이 성인학습자임을 고려하여 實用的이고도 일상의 問題解決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즉, 무엇을(what), 왜(why)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how)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과 함께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설을 위한 연구가 요청된다.

### 2) 內容의 선정

교육 참가자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계열적·획일적인 교육내용은 피해야 한다. 학습자 집단의 이질성(연령, 사회적 배경, 선행학습의 정도, 경험, 출신지역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는 탄력있고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방대학 '제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에 있어 個人差 인을 크게 고려하는 自律的 개인학습프로그램 형태로 그 내용이 선정될 수 있어야 한다.

### 3) 支援媒體 활용

일반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의 교수-학습매체는 제한된 출석수업, 인쇄물 학습교재, 과제물 제출과 시험응시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自律學習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개방매체(open media)의 활용이 필요하다. 시청각

테이프, TV 및 라디오 방송에 의한 보충학습, 비디오 등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을 자연스럽게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5. 맺는 말

이상으로 외형적 팽창 일반도로 성장해 온 오늘의 대학교육 체제 속에서 그간의 사회교육 기관 운영의 실상과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대학들도 고등교육체제의 開放化를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로 받아들여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 형태로서 사회교육기관 설립을 서둘러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은 대학에서의 成人을 위한 繼續教育은 역할과 기능면에서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열악한 대학 제정의 한계성과 개방대학 교육체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갈등의식, 그리고 평생교육 이념에 따른 계속교육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대학교육 기회의 普遍化를 주도해 가야 하는 사회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이제 대학에서의 계속교육 체제는 더 이상 주변적인 교육활동이 아니라 대학의 總體的 教育體制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고등교육체제로서 사회교육은 그 필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이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學習社會의 중요한 교육체제로서 정착되기를 바란다. ■